

### “출가정신 회복...승풍진작 기대”

조계종 승가고시위 초대위원장 무비 스님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려의 자질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위원회의 발족은 종단의 3대 지표 중 하나인 도제양성의 시발점입니다.”

7월 18일 발족된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무비(은혜사 승가대학원장)스님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승가고시가 승가위상을 높이고 승풍을 진작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 고시위원회 부활로 출가정신이 새롭게 진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가고시가 종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종단 승가교육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4·5급 승가고시를 내실있게 치우고, 여건이 마련되면 본말사주지 및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의 법계복수를 할 수 있는 3급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 승가고시위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험출제와



감독등의 실무를 도맡아할 고시전문위원을 각 분야별로 위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제1회 여름수련대회**  
성오 범어사 주지는 7월 27일~29일 범어사 보제루와 휴휴정사에서 제1회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주사찰 순회법회**  
현각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7월 20일 미국을 방문해 하와이 무량사, 샌프란시스코 여래사, L.A 관음사, 필라델피아 화엄사, 뉴욕 마하선원에서 순회법회를 봉행하고 14일 귀국한다.

**동국대 동림동문회창립 취임**  
정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창립회장은 7월 28일 서울 태워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장 취임식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지난 6월 제4차 정기총회에서 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산구치소 재소자 위문**  
금동 부산해광사 주지는 7월 28일 김해현 국악원 단원과 함께 부산구치소 방문 재소자 생일잔치 및 위안 공연을 가졌다.

**초·중·고생 역사탐방 캠프**  
청암 금하선원 주지는 2일 홍성과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초·중·고등학교생 100여명 대상 탐방캠프를 개최한다. (02)823-9135

**설법 연구원 사무실 이전**  
동불 설법연구원장은 7월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낙원회관(수운회관 지하)에서 설법연구원 이전법회를 봉행한다. 설법연구원장은 최근 종로구 인사동에서 경운동 수운회관 405호로 이전했다. (02)720-0824

시30분 서울 종로구 낙원회관(수운회관 지하)에서 설법연구원 이전법회를 봉행한다. 설법연구원장은 최근 종로구 인사동에서 경운동 수운회관 405호로 이전했다. (02)720-0824

**민통선 일대 통일기행**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 스님은 12~13일 도피안사, 철의삼각지대 등 민통선 지역으로 통일기행을 떠난다. (02)587-8996

**연rsa 시장단 방북 동행**  
김규철 불교방송사장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한 연rsa 시장 방북단에 동행.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고인쇄 박물관 문화학교 열어**  
김종벽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널리 알리고 고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학교를 개설한다. 제1기는 3일까지, 제2기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교육한다. (043)220-6580

**제주경찰서 행정위 총회**  
강창식 제주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한라불교 대표)은 7월 21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정신병원 법우회 법문**  
이학주 명성어고 교법사는 7월 정오 국립서울정신병원 법우회의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 진공당 탄성스님 49재 봉행

조계종 전 원로회의 의장 진공당 탄성대종사 49재가 7월 26일 법주사에서 봉행됐다. 법진·성수·도천 스님 등 원로위원을 비롯 교육위원장 일면스님, 중앙총회위원장 법정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에서 열린 49재에서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 법정스님(수덕사 주지)은 “평생 수행과 종단회합을 위해 힘써 왔던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수행과 종단 중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사암련 회장 이·취임식

경기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7월 26일 의정부시 삼천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종파스님,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 전 회장 혜승스님(의정부포교위원장), 신임회장 지섭스님(관음종총무원 부위원장·홍법사 주지)과 지역 유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한일병원 반야회 창립 1돌 기념법회

한일병원 반야회(회장 이영숙)는 7월 25일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학림사 문화원장 법조스님, 리선영 법사를 비롯해 황영희 국립의료원 불자회장, 김성숙 국립경향병원 불자회장과 환자 등 사부대중 80여명이 참석했다. 반야회 이영숙 회장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불자모임이 되도록 회원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 무료진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회장 강석)는 7월 15일 경주시 양북면에서 무료진료 활동을 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내면과 외동읍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한 이날 행사는 내과·소아과·정형외과 등 총 9개의 진료과 의료진 32명이 6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했다. 또 300만원 상당의 구급약품과 돌보이안경, 염주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 “학문과 불교 접목 통해 포교”

법륜불자교수회 새회장 배동호 교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지순례,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월 17일 월정사에서 열린 법륜불자교수회 하계수련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배동호 교수(영남대 생물자원학과)는 불교발전에 미력한 힘이나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법륜불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그동안 회보와 단행본 <불교와 학문의 만남>을 발간하는 등 지역불교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수들의 모인 만큼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학문과 불교의 만남을 통해 불교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자회가 생긴지 20년이 넘었고 회원도 200여명이나 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불자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신행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 천태종 정안사 무안스님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상



천태종 정안사 주지 무안스님이 7월 22일 서울 태워호텔 엘코바홀에서 열린 제11회 문학공간시 시상식에서 시부문 추천 신인상을 수상했다. 문학공간시, 한국공간시인협회, 한국공간시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무안스님은 수상소감을 통해 “수행자로서 본분사를 망각하지 않는 한에서 시 세계를 추구해 나가겠다”며 “모든 사람들의 메마른 정신세계를 부드럽게 다독여줄 함축된 시를 쓰겠다”고 말했다. 시 외에도 서예와 수묵화, 향피리 등에 능한 무안스님은 지난해 첫 시집 <보인 불수묵(담계 권)>을 내놓은 바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 “양심수 없는 세상 빨리 왔으면...”

진관스님 석방 환영법회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비전향장기수 환송법회가 7월 21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 청화스님, 총무부장 원택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장기포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이재정(민주당)·김원웅(한나라당) 의원, 이문호 민주노동당 부대표와 비전향 장기수 5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불교인권위원회의 공동대표 진관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탄압한 고대사회에서도 고령인 노인들에게는 법의 원칙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면서 “감옥에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도·화·주·세·요

병든 아버지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생후 15개월된 갓난아기 두 동생을 3년째 돌보아온 증학생 가정이 최근 주변의 도움이 끊겨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형편에 처했다. 중학교 3년생인 박길우군(15)은 IMF가 타지기 직전인 3년전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뇌졸중을 얻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마저 1년전 가출하자 하루아침에 소년가정이 됐다.

### 병든 아버지·젖먹이 두 동생 돌볼 길 막막

다. 돈을 벌 처지가 못되는 박군은 지난해 2월 한시생계보호가정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보조금 25만원과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약간의 돈으로 아버지 간병과 젖먹이와 초등학교 두 동생을 돌보아왔다. 그러나 최근 정기후원이 끊기면서 정부 보조와 청담복지관 후원만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돼 아버지 치료는 둘째치고 젖먹이 동생의 분유와 기저귀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곤궁하며 길우는 학업마저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그래서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던 길우의 얼굴엔 먹구름 같은 근심이 가득하다. 도움주실 분은 (02)806-1376~7(청담사회복지관)로 연락하면 된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는 지난 98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諸法에 대한 만민토론 법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차대법회란 말 그대로 불교계에 諸法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누구나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개 토론하는 장으로 선논쟁의 불식과 禪風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행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깨우침을 전해 줄 고불총림 무차대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법어:** 서옹, 율하, 송산, 진제  
고불총림 법장 영속총림 법장 회계서 조실 동해사 조실

**■강설:** 종성, 성본  
임계선원 조실 동국대 교수

**■일정**

- 오전 9시30분 큰스님 법어
- 오후 2시 큰스님 법어 및 강설
- 오후 6시 연등 점등

※ 오전 8시30분~수시: 방생법회(일광정 호수)

**■주최:** 고불총림 백양사

**■주관:** 참사람 무차대법회 조직위원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범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古佛叢林 參사람 無遮大法會

2544년 8월 19일(음 7.20) 토요일

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1) 392-7502  
팩스 (061) 392-2081